

한투-라이프운용, 국내 첫 협업 ETF 상장

ACE 라이프자산주투자액티브 ETF 주투자자 개선 가능성 높은 종목 투자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라이프자산운용이 'ACE 라이프자산주투자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 국내 운용사 간 협업으로 ETF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는 15일 ACE 라이프자산주투자액티브 ETF를 상장한다고 14일 밝혔다.

ACE 라이프자산주투자액티브 ETF는 국내 주식시장 상장 종목 중 주투자자 개선 가능성이 높은 대형가치주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교지수는 에프앤가이드가 산출·발표하는 'FnGuide 기업가치 지수'이다.

라이프자산운용은 국내 가치투자 1세대인 이재원 의장이 이끄는 운용사로, 정량 및 정성적인 종목 분석을 통한 해당 ETF의 투자 자문을 맡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라이프자산운용이 분석한 종목을 선별해 40개 종목 내외로 포트폴리오 구성 및 ETF 운용을 담당한다.

한투운용 측은 "해당 ETF는 '고객가치'를 지향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주투자자' 제고를 추구하는 라이프자산운용과 함께 출시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라이프자산운용과의 협업을 택한 이유는 ACE 라이프자산주투자액티브 ETF가 필

요시 주주권한 행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주 간 협력을 통해 우호적인 주주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진과의 미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전략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 방면에서 국내 최초 주주협력주의 전문운용사인 라이프자산운용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ACE 라이프자산주투자액티브 ETF는 우수한 비즈니스 펀더멘탈과 기업가치 향상 잠재력, 주투자자 제고 아이디어를 가졌으나 저평가된 종목들을 엄선해 투자한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의 재평가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은 "한국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기업이 주주친화 정책을 통해 주가를 높여가는 것"이라며 "국내 주식시장 역시 장기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내놓은 상품이 ACE 라이프자산주투자액티브 ETF"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가치와 주투자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두 회사의 만남이 시너지를 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치주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ACE 라이프자산주투자액티브 ETF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리인하에 배당주 ETF '인기몰이'

미래에셋운용 '美배당 다우존스ETF' 美 고배당 투자 ETF '슈드' 매수 늘어

국내 자산운용사, 상품 라인업 확대 전문가 "장기적 성과 두드러질 것"

금리 인하기를 맞아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권을 비롯한 저축 상품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14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한달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장지수펀드(ETF)'를 643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 상품은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 오며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은 우량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다. 이 기간 전체 ETF 중 개인 순매수 2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개인들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도 192억원어치 사들였다.

해외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도 배당주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학개미들은 미국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ETF인 '슈드'(SCHD,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를 9319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슈드는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배당 ETF다. 연 평균 3~4% 수준의 높은 분배율과 시장 변동



/유토이미지

성을 줄일 수 있는 종목 구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처럼 배당주 ETF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배당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5일 'TIGER 미국 AI 빅테크10타겟데일리커버드콜'을 코스피시장에 상장한다.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10개 대형 기술주를 매수하고, 나스닥100 ATM(등가격) 콜옵션을 매일 매도해 분배금을 제공하는 패시브 ETF이다. 옵션 매도 비중을 약 10%로 낮춰 AI 빅테크 기업의 성장성을 따라가면서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추구한다.

신한자산운용도 같은 날 'SOL 미국 500타겟커버드콜액티브'를 선보인다. 이 ETF는 미국 퀄리티500지수 구성종목에 투자하며 S&P500 ATM 콜옵션을 매일 매도해 배당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3개월 평균 거래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유동시가총액 기준 상

위 500위 안에 드는 종목을 담고 있다.

앞서 신한자산운용은 지난달 'SOL 미국 배당 미국채혼합50' ETF를 출시한 데 이어 이달 8일 'SOL 미국 배당 다우존스 TR' ETF를 코스피에 상장한 바 있다. 이 상품은 미국 대표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총수익지수(TR)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패시브형 ETF다.

업계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배당주의 성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했다. 엄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표적인 미국 배당주 지수인 'S&P500 Aristocrat 지수'의 경우, S&P500 대비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장 금리 하락 구간에서는 배당주의 성과가 좀 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자소득의 감소는 배당소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한투증권, 칼라일과 협력... 해외사업 강화 박차

한국투자증권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칼라일그룹과 전략적 제휴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과 저스틴 플루프 칼라일그룹 CIO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성환 사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1년간 칼라일과의 협업을 통해 선진 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양질의 금융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리테일 상품 파이프라인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코스피 부진, 삼성전자 주가하락 '한몫'

한 달간 코스피·코스닥 상승률 각각 2.91%·9.17%... 약 3배 차이 반도체 업황 부진에 外人 매도세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부진의 원인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꼽히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코스닥이 코스피의 수익률을 추월하기도 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9월 11일~10월 11일) 코스피 상승률은 2.91%로, 동일 기간 코스닥지수 상승률 9.17%과 약 3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5만전자'로 떨어지는 등 코스피 대장주들의 주가 부진이 지속되면서 격차가 벌어진 모습이다.

문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글로벌 '꼴찌' 수준의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기준 올해 전세계 평균 수익률은 16.6%이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2%, -11.3%를 기록했다. 전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이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이탈로 인한 시장 수급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이 배경으로 보인다"며 "우리 시장의 부진에는 반도체 부진이



삼성전자가 2024년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삼성전자는 이날 개장 전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21% 증가한 79조원, 영업이익은 274.49% 늘어난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뉴시스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되며 코스피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부연이다.

지난 8월부터 쏟아진 외국인 매도세는 코스피 하락에 강한 압력을 주고 있다. 상반기 내내 순매수세를 유지하던 외국인들은 '셀 코리아(Sell Korea)'로 투심을 전환시키며 3개월째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삼성전자로 12조6497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모건스탠리의 부정적 보고서와 3분기 '어닝 쇼크'의 영향으로 8조6209억원에 달하는 순매도세를 기록했다. 순매도 상위 2번째 종목 역시 삼성전자우로, 실망 매물이 대

거 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25%"라며 "시총 비중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 보합만 됐어도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수익률은 피할 수 있었던 셈"이라고 분석했다. 대형주 지수인 코스피200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8월 초 급락 이후 완만한 반등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국내 증시 부진에서 삼성전자만 제외해도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부진에 대한 압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만큼 삼성전자가 표면적으로 많은 부분을 가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투협, 개인 신용거래대주 업무규정 개정

내년 3월31일 개정안 시행

금융투자협회는 개인 신용거래대주 제도개선을 위해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담보 비율을 120% 이상에서 기관대차거래 수준인 105% 이상으로 인하하고 대주 담보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을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 제공 의무, 담보가격 할인평가, 상환기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먼저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영위하는 28개 증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통합계좌'만 제공하는 16개 증권사의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전용계좌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신용거래대주, 신용융자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계좌로 신용거래대주·융자 등 전체에 대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140%가 적용되며 담보도 계좌 단위로 통합관리된다.

/원관희 기자